
1986년도 사료곡물시장 전망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I. 국제곡물시장과 국내축산업

불과 20여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농가부산물이나 자급사료에만 의존하던 축산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시작된 일련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축산진흥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축산업도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즉 과거와 같은 부업축산방식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축산물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고 경제적유리성(Economy of scale)을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축두수는 늘어나고 경영방식도 전업화, 기업화 축산방식으로 바뀌어졌다. 또한 사료공급도 국내자원의 한계성과 국내자원가격(DRC : Domestic Resource Cost)의 불리함으로인해 값싼 외국산 사료곡물을 수입해다가 배합사료를 생산해냄으로써 이와같은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결과 국내축산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고 사료산업도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는 한해 생산량이 600만톤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급성장의 이면에는 이른바 “수입의존도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배태하기에 이르렀다. 즉 국민대부분이 소비하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계란, 우유등이 국내에서 생산만 이루어졌을 뿐 그 원료의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 태국, 아르헨티나에서 공급되어진 것이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양돈산업, 낙농산업 할 것 없이 모든 축산부문이 국제곡물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은 국내 축산물시장의 불안정을 몰고오는 장본인이 되었다.

이와같이 국제곡물시장과 국내축산업의 불가분의 관계는 이제 뗈래야 뗈 수 없는 피와 살의 관계가 되었고 이와같은 관계에서 빚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기위해 정부에서도 그동안 여러가지 완충장치를 고안해 냈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만한 효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옥수수 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곡물시장과 국내사료가격을 분리 안정시켜보려 했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으로인해 8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이래 지금은 사료가격 동결이란 진통제를 놓아 사료가격인상을 진정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처방들은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일 뿐이지 본원적인 처방은 아니어서 급작스런 국제곡물시장의 상황변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도 높은 진통제를 다시 놓아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와같이 우리 축산업이 안고있는 성장속의 불안정은 앞으로 우리 축산·사료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고 현재의 당면한 문제는 지금과 같은 가격안정을 위한 진통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태국 중공등의 국제곡물수급동향과 가격전망을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제곡물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제 곡물시장 구조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사료곡물로는 옥수수, 수수, 사료용소맥, 호밀, 귀리등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기름을 짜낸 부산물인 대두박, 채종박이 있고 그밖에도 여러가지 가공 부산물등 수입원료들이 있다.

그중 옥수수는 우리나라 배합사료원료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양계용사료원료에 있어서는 착색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지니고 있다. 이때문에 과거 양계사료의 비중이 높던 우리나라에서는 사료곡물수입시 주로 옥수수 단일곡종에만 주로 의존해왔으나 최근에는 사료곡물 다양화시책등으로 타 곡류수입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들 곡류별 주요시장구성현황을 보면 옥수수의 경우 세계 총생산량은 약 4억톤이상으로 그중 절반가량이 미국 한나라에서 생산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고 있는 물량은 총생산량의 약 15%내외이며 주요수출국들은 미국, 아르헨티나,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공등이다. 지난 84년부터 옥수수 수출국으로 부상된 중공도 급격한 생산증가를 배경으로 수출을 늘려오고 있으나 아직 이들 주요 수출국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수출시장점유율은 대단히 높아서 세계전체교역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들은 일본, 소련, EEC, 대만, 한국등으로 소련과 일본이 전체교역량의 45%가량을 수입하며 한국도 연간 약 350만톤(1983년기준)가량을 수입함으로써 전체교역량의 5%가량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한편 옥수수와 대체관계에 있는 기타곡물중 수수의 경우는 연간 약 1300만톤이 국제시장에서 교역되고 있으며 거의 전량이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중공등에 의해 수출되고 있고 주요수입국은 일본, 소련, 멕시코등이다.

또한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소맥은 사료소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저급소맥들이 주로 사료용으로 유통되며 해마다 교역되는 물량과 가격은 일정치 않다. 소맥의 주요수출국들은 미국, EEC,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등이며 이들 5개국이 전체 소맥교역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두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두를 수입해다가 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을 사료용원료로서 이용하거나 또는 대두박을 직접 수입해오기도 한다. 대두는 세계 총생산량이 약 9천톤가량이며 그중 60%는 미국에서 생산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30%내외이며, 거의 90%를 미국에서 수출하며, 나머지 10%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에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두박의 경우는 브라질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는 브라질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대두를 직접 착유후 수출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호밀이나 귀리, 보리등이 사료용 원료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생산량이나 국제교역량이 많지 않으며, 주로 옥수수등의 대체원료로서 많이 이용된다. 특히 호밀과 보리의 경우 캐나다의 시장지배력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와같이 국제사료곡물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수출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중 미국의 시장지배력은 가장 높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독과점적 공급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만일 가장 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에서 기상이변이나 농업정책의 변화, 항만스트라이크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등락은 물론 수입국의 사료수급이 불안정해진다. 그뿐만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소련의 사료곡물수입비중은 대

단히 높기때문에 소련 농업의 흉작이나 기상이 변등은 마찬가지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교란을 가져온다.

결국 많은 양의 사료곡물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선 사료곡물의 공급불안정에 대한 위험은 항상 따르기 마련이며, 특히 단일원료를 단일국가에서만 수입한다고 할때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 사료곡종을 옥수수 단일품목에서 수수, 사료용소맥, 호밀등으로 다양화해나가고 있고, 수입선도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등으로 다변화시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한 공급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Ⅲ. 국제곡물시장의 수급전망

1983년 국제사료곡물시장은 세계 최대곡창인 미국의 흉작과 감산정책(PIK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대단히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왔다. 또한 그해 남아프리카의 곡물수출국들도 한발피해로 인해 수입국으로 전락되면서 미산 옥수수시세는 한때 C&F기준으로 톤당 170달러까지 기록했었다. 그러나 다행히 84년후반부터 미국농업의 생산이 호전되면서 옥수수시세는 꾸준히 하락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5년 1월 옥수수시세가 C&F 톤당 140불선이었던 것이 수확기인 10월에와서는 118불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가격수준은 근대 보기드문 낮은 가격으로 국내산 보리사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국내 배합사료가격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

내년도 세계의 사료곡물수급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미농무성이 추정발표한 세계곡물작황발표 내용을 보면 옥수수, 수수, 보리, 호밀등으로 구성되는 금년도 세계조곡(Coarse Grain) 생산은 8억4500만톤으로 지난해 생산량인 8억830만톤에 비해 4.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

억7140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4.5%, 남아프리카는 4.7%, 캐나다, 12.3%, 소련, 9.3%, 태국, 19.1%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 동유럽, 브라질, 중공 등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료곡물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생산은 4억 7460만톤으로 4.4%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미국과 태국으로 미국은 금년도 옥수수생산량이 2억2140만톤으로 지난해의 1억9450만톤에 비해 13.8% 증가하였고, 태국은 520만톤으로 지난해의 440만톤에 비해 18.2%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3%, 서유럽이 3.5%씩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유럽과 중공의 옥수수 생산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중공은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6600만톤으로 지난해의 7340만톤에 비해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세계 옥수수 교역전망을 보면 금년도 주요 옥수수 수출국으로 미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중공등을 들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태국의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과 중공의 수출물량은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세계사료곡물시장의 가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사료곡물 특히 옥수수의 수급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호전되었다. 즉 지난해에서 넘어오는 기초재고는 지난해에 비해 6배이상이나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13.8%나 증가하여 전체 공급수준은 20.5%나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같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데 반해 소비량은 크게 늘지않아 국내용 소비가 5% 증가할 예상인데 반해, 수출소비가 11.6%나 감소할 전망이다.

이때문에 금년 미국 옥수수의 기말재고는 지난해보다 121.4%나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농가의 평균판매가격도 지난해의 붓셀당 \$2.65에

표 1. 세계 조곡(옥수수, 수수, 귀리, 호밀, 보리등)생산

단위: 백만톤

구	분	1985 / 86년(A)	1984 / 85년(B)	증감율(%) A / B
미	국	271.4	237.1	114.5
	남아프리카공화국	8.9	8.5	104.7
태	국	5.6	4.7	119.1
소	련	94.0	86.0	109.3
중	공	88.2	96.4	91.5
세	계(계)	845.0	808.3	104.5

자료: 1985년 12월 11일 미농무성 발표

표 2. 세계 옥수수 생산

단위: 백만톤

구	분	1985 / 86년(A)	1984 / 85년(B)	증감율(%) A / B
미	국	221.4	194.5	113.8
	남아프리카공화국	8.0	7.6	105.3
태	국	5.2	4.4	118.2
소	련	12.5	12.5	100.0
중	공	66.0	73.4	89.9
세	계(계)	474.6	454.6	104.4

자료: 1985년 12월 11일 미농무성 발표

표 3. 세계 옥수수 교역

단위: 백만톤

구	분	1985 / 86년(A)	1984 / 85년(B)	증감율(%) A / B
아	르	9.0	7.1	126.8
	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0.9	0.1	90.0
태	국	3.6	2.9	124.1
중	공	3.5	5.2	67.3
미	국	41.3	46.7	88.4

자료: 1985년 12월 11일 미농무성 발표

표 4. 미국의 옥수수 수급

단위: 백만톤

구	분	1985 / 86년(A)	1984 / 85년(B)	증감율(%) A / B
공	기	112.6	18.4	612.0
	초	221.4	194.5	113.8
	재	0.03	0.08	37.5
	고	256.5	212.9	120.5
소	비	137.7	131.2	105.0
	해	41.3	46.7	88.4
	외	178.9	177.9	100.7
	수출용			
	총	77.5	35.0	221.4
	소비			
농가평균판매가격(\$/bu)		2.35~2.55	2.65	

자료: 1985년 12월 11일 미농무성 발표

비해 다소 낮은 \$ 2.35~2.55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V. 국내 사료시장의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금년도 국제곡물시장의 수급상황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호전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금년도 국내사료시장도 비교적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만일 소련이 국제곡물시장에서 사료곡물수입량을 크게 늘려가거나, US달러시세의 약세현상이 지속될 때 상황은 다소 달라질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태국및 중공산 옥수수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있는 현정부시책때문에 금후 사료가격의 인상은 거의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판매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실은 앞으로의 국내사료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사료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사료소비에 대한 이상증가현상이다 즉 축산물소비가 늘어남에따라 사료소비가 늘어

난다면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축산물소비는 크게 늘지 않는데 사료소비만 크게 늘어난다면 이는 축산물 과잉공급을 야기시켜 축산물가격을 하락시키고 양축가는 물론, 사료산업등 국가경제에 마이너스적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때문에 지난해부터 정부와 사료업계는 지나친 사료생산으로 인한 양적팽창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배합사료생산량 역시 낮은 수준에서 계획하고 있고, 지나친 사료곡물소비를 줄이기위해 대대적인 사료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축가들도 이와같은 점을 충분히 감지하여 일시적인 투기붐에 동승치 말고, 수시로 국내소비량을 관찰하고 증가추세를 분석하여 축산규모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사료가격이나 축산물가격등에만 집착하여 축산규모를 확대해 나갈때 거둬지는 축산물 가격과 동등으로인해 안정적인 축산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막소식

젖소고기 총생산의 70%차지

日本の 1984년도 쇠고기 자급율은 71%로서 나머지 29%는 輸入으로 충당했다.

이중 국내산 쇠고기는 최근들어 거의 70% 수준이 젖소에서 생산·공급되고 있다.

1983년도 쇠고기 총생산량은 枝肉基準으로 489,123톤이었으며 이중 和牛를 주축으로 한 肉用種으로 供給된 쇠고기는 전체의 32.2%인 157,967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67.7%인 331,156톤이 젖소에서 공급되었는 바 이를 다시 분류해 보면 젖소 숫송아지 育成肥育인 去勢牛가 34.8%인 170,126톤, 젖소 淘汰牛가 32.9%인 161,030톤이었다.

이와같은 일본의 젖소 쇠고기 생산은 60년대까지만 해도 和牛가 주축이고 젖소 도태우가 전체 쇠고기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는

데 그쳤으나 70年代 이후 점차적으로 젖소 숫송아지 육성비율 및 도태우의 비중이 높아져 80年代에 들어와서는 2/3이상이 젖소에서 공급되게 된 것이다.

이는 酪農業이 主産物인 우유외에 쇠고기 생산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숫송아지 育成肥育이 産肉能力, 飼料利用效率등 經濟性이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농의 결과로 확보되는 숫송아지와 도태우 그리고 우유소비가 큰 증가없이 안정되는 수준으로 갈수록 발생하는 剩餘 암송아지까지도 훌륭한 쇠고기 生産資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뉴스 레이터〉